

KIA, 김기태 감독 선임

‘虎시절’ 찾으러 형님이 왔다



KIA 타이거즈 김기태 신임감독이 28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관중석에서 그라운드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출신 18년만의 귀향...LG 선수 육성 높은 점수 “김선빈·안치홍 공백 메워 프로다운 모습 보이겠다”

“프로에는 핑계가 없다. 의무를 다한 권리를 강조하겠다.”
위기의 ‘호랑이 군단’이 선택한 돌파구는 ‘형님 리더십’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제 8대 감독으로 김기태 전(前) LG 감독을 선임했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광주일고 출신의 김기태 감독은 계약금 2억 5000만원, 연봉 2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에 계약을 끝내면서 쌍방울과 LG를 거쳐 마침내 고향 팀 유니폼을 입게 됐다.
김 감독은 “1987년 고향을 떠난 뒤 28년 만에 이곳에 돌아오게 됐다.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많은 게 바뀌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서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 어렸을 때 거뒀던 선수했던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향에 돌아온 소감을 밝혔다.
KIA가 김 감독에게 기대하는 것은 ‘형님 리더

십’. KIA는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김 감독을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 LG 사령탑 시절 보여준 선수들의 육성 능력도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리빌딩과 융합의 주요 과제를 김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다.
김 감독은 “내부적으로는 아직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통해서 확인해야겠지만 확실히 팀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잡아 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짚은 자신의 역할은 ‘내부 들여다보기’다. 김 감독은 “캠프가 당장 내일 시작되기 때문에 코칭스태프 인선이 중요하다. 인선을 하고 행정적인 부분도 살핀 뒤 최대한 빨리 캠프에 합류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선수들 마음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KIA 타이거즈라는 팀에서 해왔던 전체적인 성향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안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로 최대한 빨리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고 말했다.
김 감독이 강조한 것은 ‘프로다운’이었다. 선수들에게도 프로 선수로서의 의무를 강조했다.
김 감독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프로는 잘해야 한다. 프로라는 것은 핑계가 없어야 한다. 말보다는 항상 행동으로,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무다.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와 권리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선빈-안치홍 동반 임대 등 전력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도 그렇고 나도 고생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시즌까지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준비 잘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겠다. 그게 내 일이고 역할이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현재 광주에 머물고 있는 김 감독은 선수단 현황 파악과 코칭스태프 인선 등 국내 일정을 마무리한 후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마무리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김 감독의 뜻에 따라 마무리 훈련이 끝난 뒤 이뤄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日서 마무리 훈련

오늘 미야자키 출국...내달 28일까지 캠프

KIA의 마무리 훈련에 속도가 붙는다.
KIA 마무리 캠프단이 29일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한다. 캠프는 내달 28일까지 31일간 계속된다.
마무리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신임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8명과 임준혁·한승혁 등 투수 10명, 강한울·김다원·박준태 등 야수 14명, 백용환 등 포수 3명 등 총 35명이다.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아기 호랑이’ 황대인(내야수), 김명찬(투수)도 이번 마무리 캠프에 동행한다.
선수단은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 구장에 캠프를 차리고 웨이트 등 체력훈련과 실전대비 기술 및 전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 시즌 팀의 주축 선수로 역할을 한 양현종,

임준섭, 김주찬, 이대형 등은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돗토리현 월드윈 트레이닝센터에서 회복 훈련을 하며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
미야자키와 돗토리 마무리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광주와 함평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KIA 마무리캠프 명단(35명)
▲감독: 김기태 ▲코치(7명): 김태룡, 홍우태, 김중국, 홍세환, 이대진, 김창희, 김상훈 ▲투수(10명): 임준혁, 한승혁, 박성호, 신창호, 고영창, 박상욱, 정정환, 홍건희, 최현정, 김명찬(신인) ▲포수(3명): 백용환, 이흥구, 오두철 ▲내야수(8명): 최용규, 고영우, 강한울, 박찬호, 최병연, 황수현, 김광연, 황대인(신인) ▲외야수(6명): 김다원, 이호신, 이종환, 서용주, 류현철, 박준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공필성 코치

길 잃은 ‘부산 갈매기’

구단 “선수단이 공필성 감독 선임 반대”...선수단 “프린트가 이간질” 내홍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새 감독 선임을 앞두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롯데 선수단은 28일 새벽 선수단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담당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이어 두 번째 입장 표명이었다.
발단은 한 스포츠 매체의 보도였다. 이 매체는 “롯데 선수단이 대표이사를 만나 공필성 코치의 감독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자 메시지는 이와 관련한 것이었다. 주장 박준서는 선수단을 대표해 “선수단은 결단코 공필성 감독 결사반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구단 프린트를 옹호하는 듯한 다른 언론 보도가 나오자 모든 것이 틀어졌다. 구단 프린트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인 롯데 선수단은 저녁 늦게 회동을

하고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다.
롯데 선수단은 이 성명서에서 당시 문자 메시지가 구단 프린트의 험박과 회유에 의한 것으로 구단 프린트가 반박기사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단 프린트 한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에게 물었다. 이 직원이 오고부터 “편이 갈리고 라인이 생기고 코치와 선수의 불화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롯데 구단 내부의 잡음은 시즌 중에도 여과 없이 흘러나왔다. 선수들은 구단 프린트를 믿지 못했고, 코치진 사이에서도 반목의 골이 깊어졌다. 심지어 경영진이 코치진 내부와 선수단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줬다는 얘기도 들렸다.
금기가 5월에는 선수단의 요구로 권두주 수석 코치가 물러났고, 성적이 급전직하한 8월 말에는



정민태 투수코치가 3군으로 내려갔다. 김시진 감독은 정 코치를 보지 변경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프린트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필성 감독 대행체제를 준비했는데, 이 또한 외부로 새나갔다.
롯데 선수들의 집단행동은 공필성 코치 감독 선임과 관련된 입장 표명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특정 인사로 대변되는 구단 프린트의 감압적인

연봉 협상 방식에 대해 쌓인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롯데 선수단은 성명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구단 프린트의 교체를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롯데 선수단은 구단 프린트와 정면전을 선언하면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진흙탕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 과연 승자는 있을까.
/연합뉴스